

# 現代詩 현주소 보여주는 '세계시인선'

## 제3세계 시인에서 소련 현대시인까지 다양

80년대 문학현상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으로, 산업사회의 주변부로 완전히 밀려난 줄로만 알았던 詩장르가 불사조처럼 회생, 문단의 관심을 모으더니 급기야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80년대의 시문학 내지 시집출판을 진단해본다면 외면적 풍성함과 달리 사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중누각이라고 할 정도로 기반이 허약한 것이다.

몇가지의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면 '잘 팔리는 시집'과 '좋은 시집' 사이의 격차는 짐작 이상으로 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점은 특히 번역시집에서 확인되는데, 시집 구매층의 대부분이 선택하는 시인들은 아직도 하이네, 바이런, 헤세의 낭만주의풍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20세기 시인이라고 해야 발레리나 엘리엇, 릴케 정도에서 멈추고 만다.

이처럼 한정된 구매층에도 불구하고 몇몇 출판사에선 상업성에 구애받지 않고 외국 현대시인들의 작품을 꾸준히 번역 출판하고 있어 시를 사랑하는 독자의 호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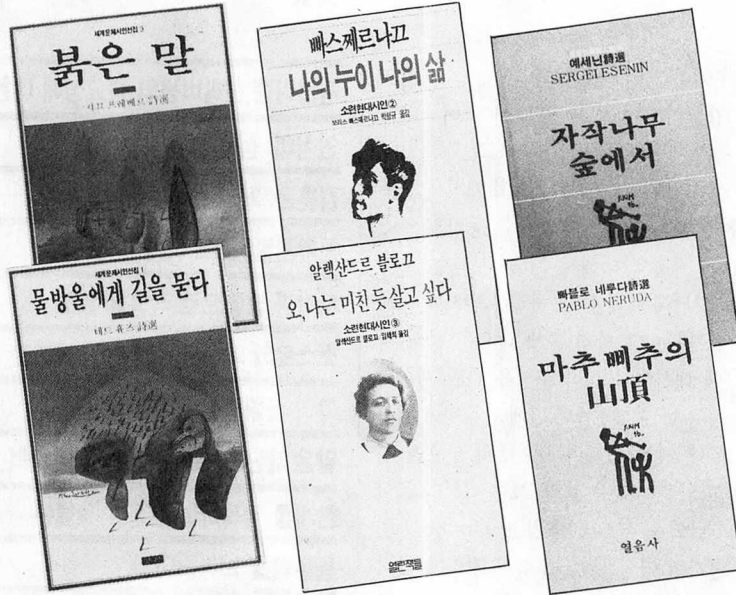
### 청하와 열음사가 대표적

이 가운데 가장 선진적인 위치에 놓인 출판사가 민음사. 70년대 중반부터 '세계시인선'이라 하여 동서고금의 유명시인들의 선집을 펴내 시독자의 갈증을 적셔주었다.

물론 대부분 20세기 이전 시인들이지만 생종 페르스나 고트프리트 벤, 쿤터 아이히갈은 전후시인들의 이름이 우리나라 문학독자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민음사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출발 당시 300원이었던 정가가 현재 1,000원이 되었는데, 아직도 꾸준히 나가고 있다고 출판사에선 귀땀했다. 70권째 라마르틴느를 끝으로 새 시집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80년대 이후 외국 현대시인의 시집을 시리즈로 펴내고 있는 곳으로는 청하, 열음사, 열린책들을 들 수 있다.

청하에선 '세계문예시인선집'이라 하여 그동안 전혀 소개되지 않은 외국의 현대시인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물방울에게 길을 묻다」(테드 휴즈), 「죽음의 푸가」(파울 첼란),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프랑시스 폰쥬) 등 15권을 펴냈으며, 이어서 W.H. 오든과 에메 세제르의 시를 출판할 계획이다. 제10권 릴케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소개됐던 「두이노의 비가」와 「오르포이스에게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전후 세계적 시인들의 작품이 꾸준히 번역 소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열린책들에서 '소련현대시인선'을 펴내 그동안 우리 독자들이 맛보지 못한 북구적 정열과 혁명의 맥박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바치는 소네트」를 완역했고 9권 「태양의 돌」은 멕시코의 시인 옥타비오 바스의 시집으로 제3세계의 전위적 시의 현주소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의롭다.

열음사의 '세계시인선'도 비슷한 유형을 보여준다. 1권 앙리 미쇼의 「바다와 사막을 지나」를 시작으로 동독 출신의 시인 라이너 쿤체의 「민감한 길」까지 10종을 펴냈다. 예세린과 아흐마토프와 같은 소련시인이 포함됐고 일본의 다무라 류이찌가 독특한 시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삶과 죽음의 변증법을 집요하게 탐구한 프랑스 시인 이브 본느프와의 「살라망드르가 사는 곳」도 무서운 전언을 담고 있는 시집. 열음사에서는 엘리아르, 르노, 긴즈버그의 시집을 준비하고 있다.

### 혁명의 맥박 담긴 '소련현대시인선'

비록 한 나라에 국한돼 있긴 하지만 소련서적 전문출판사인 열린책들의 '소련현대시인선'도 관심을 모으는 시리즈. 「타덕 지바고」의 작가를 영어식으로 파스테르나크로 읽지 않고

파스체르나크로 표기한 데서 이 출판사의 '자존심'과 '근지'를 엿볼 수 있다.

마야코프스키의 「내가 아는 한 노동자」, 브로드스키의 「소리없는 노래」에 이어 최근 파스체르나크의 「나의 누이 나의 삶」과 알렉산드르 블로끄의 「오, 나는 미친 듯 살고 싶다」가 출판됐으며 예프뚜셴코, 보즈네센스키,

즈베파예바, 만젤리쉬탐의 시집을 준비하고 있다.

마야코프스키의 번역시집이 3권에 들어갔으며 블로끄의 「오, 나는 미친 듯……」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들 시인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러시아 혁명의 명암과 관계하고 있어 이채롭다. 가령 마야코프스키와 블로끄가 혁명에 열광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글을 쓴 경우라면, 파스체르나크는 회의적이었고 아흐마토프는 스탈린시대에 절필에 들어갔으며 브로드스키는 서방으로 추방당한 경우.

시인들이 겪어야 했던 다양한 삶의 파노라마처럼 그들의 시 역시 다양한 굴곡을 보여준다. 이 점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시인이 블로끄로서 초기에 상징적이면서도 신비주의적 성향의 시를 썼던 그는 혁명의 진전과 함께 투사로 변신, 불후의 서사시 「열들」을 남긴다. 그러나 찬란했던 불꽃도 잠깐이었을 뿐, 그는 21년 젊은 나이로 병사한다. 북구적 정열과 혁명의 맥박소리가 담긴 열린책들의 소련현대시인선은 그동안 우리 독자들이 맛보지 못한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화제의 책

## 88년 한국출판계의 조감도

### 출협, 「韓國出版年鑑 1989」 발간

1988년의 출판관계 자료를 모아 정리한 「韓國出版年鑑 1989」가 나왔다. 이 연감에는 작년 한해동안 발행된 출판목록은 물론이고, 출판계와 관련된 분야의 연간일지와 각종 통계 및 법규까지 모두 망라하고 있어, 88년 출판계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유용하다.

연감은 모두 7편으로 구성됐는데 연간일지 편은 출판의 흐름을 월별로 정리했고, 개관편에 일반도서와 잡지·인쇄·서적상·도서관별로 일년 동안의 주요 변화를 분석했다. 분야별 출판목록은 도서·잡지·교과서로 나누어 저자 및 가격까지 밝혀놓았으며,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통계 편은 기본자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출판·잡지사를 비롯, 서점과 인쇄·제책



사, 도서관, 저작권 대행사의 일람표를 명부 편에 담았는데, 특히 참고편에 납월복 작가작품 해금에 따른 문헌현황과 작품목록을 실어 참고자료로서 연감의 특징을 살리고 있다.

大韓出版文化協會 / A5 / 1530면 / 40,000원